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6. 이 가격이 실제인가?

바깥과 '보세샤스 데 포르쿠'를 싹껏 먹고 나서 우리는 디저트까지 먹기로 했다. 아몬드와 초콜릿 푸딩을 하나씩 주문해 보았는데 커다랗고 푸짐한 사이즈가 나왔다. '하나만 주문해서 나누어 먹을 걸'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으나 맛을 보고 나서는 금세 두 개를 다 깨끗이 먹어버렸다. 달달하지만 지나치게 달지 않고 모양은 없지만 소박한 것이 주말에 가족끼리 먹으려고 집에서 정성껏 만든 디저트 같았다.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계산서를 달라고 했다. 여러가지를 먹고 마시고 디저트까지 배불리 먹었는데 32.8 유로밖에 나오지 않아 혹시 계산 착오가 있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다른 무엇보다 와인 가격이 매우 싼 것이 눈에 띄었다. 스페인에서도 와인 값이 한 잔에 3-4유로 정도로 저렴해서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는데 포르투에서는 2.5 유로 정도였다. 와인 외에도 우리가 먹은 요리들과 디저트까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들이었다. 포르투갈 물가가 매우 낮다고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어리둥절한 기분도 들고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포르투갈은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고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가 발달했고,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도 높으며, 치안도 안전하고, 게다가 날씨마저 온화하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것은 다 제쳐 놓더라도 낮은 물가가 정말 매력적이다. 낮은 물가 덕에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아 해외 은퇴자들이 포르투갈로 향하고 있으며, 까다롭지 않은 이민 절차로 인해 이민자들도 증가 추세라고 들었다. 우리는 며칠 다녀가는 여행객에 불과했지만 낮은 물가를 처음 확인하고 나니 '정말 여기서 적은 돈으로도 알차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가 먹은 것에 비해서 너무 싸게 느껴지는 계산서를 결제하면서 나는 살짝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게다가 팁

도 없다! 마치 공짜로 먹고 가는 기분이었다. 와글거리는 카운터바에서 정신없이 손님들을 챙기고 있던 곱슬머리 주인 사장님은 떠나는 우리에게 정답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포르투 첫 식사는 성공적이었고, 포르투 사람들 첫인상도 참 좋았다. 어쩐지 우리 여행이 순조롭고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아 안도감과 행복감이 밀려왔다.

느긋하게 기분이 좋아진 R과 나는 '타베르나 상투 앙토 나우'를 나와서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하늘에 구름은 별로 없지만 전반적으로 흐리고 습했다. 아까 올라온 길 반대편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언덕에서 아래쪽 골목길을 내려다보며 가다 보니 멀리 도우루강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골목길에 있는 집들은 붉은 지붕 위에 초록색 이끼와 이름 모를 식물들을 잔뜩 이고 있었다. 골목길에는 커다란 갈매기들이 날아와 주차된 차 위와 길 위에 앉아 있었고 몇 마리는 길 한가운데로 뒤통거리며 걸어 다니기도 했다. 갈매기가 여기까지 날아온 것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구부정한 할아버지 한 명이 나와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뿌려 주었다. 겨울이지만 온화한 날씨 때문인지 아직도 여기저기 녹색 식물들이 가득했고, 도우루강 쪽에서 오는 바람은 이 평화로운 풍경을 감싸 안으며 너울너울 불어와 언덕 위에 서있는 우리 머리카락을 휘날려 주었다.

잔잔히 흘러가고 있는 도우루강 멀리에 동 루이스 1세 다리가 보였다. 강변 저쪽에는 짙푸른 나무들 사이로 큰 건물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붉은 지붕, 하얀 벽의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 선 것이 보였다. 지도로 찾아 보니 우리가 있는 쪽은 리베이라(Ribeira, 포르투갈어로 들어보면 '리베이라'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베이라'라고도 불리기도 한다)쪽이고, 저 반대쪽은 '빌라 노바 드 가이아(Vila Nova de Gaia)' 쪽이다. 포르투, 오후 4시. 그림 같은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수요 :
연락주세요.

24 시간 제이킴
714.249.5469

너무나 쉬운 주택대출 Non-QM Home Loans

세금보고서 필요없습니다
 बैंक 스테이트먼트로 충분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적극 추천합니다

- 3백만 불까지 용자 가능
- LTV 90% 까지/PMI 없음
- 투자용 부동산 85% 캐시 아웃
- 최소한 서류로 2-4 주 내에 클로징
- 외국 국적 고객 환영
- 주택구입, 재융자, 캐시아웃, 투자용 대출 상담 환영



W-2
Tax Returns
PMI
Hard Money
구입
재융자
캐시아웃
투자

David R. Kim
 Private Client Group - NonQM Loans
 Direct (714)790-6581 Mobile (949)690-0189 NMLS #1693713
 Email: david.kim@tunited.net 17341 Irvine Blvd Tustin CA 92780

